



관광 1번지 '목포' 가을 축제 속으로...

목포해상W쇼

27~29일 국제남도음식문화축제
10월 5~6일 골목길 문학축제
11~13일엔 항구축제 등 풍성
맛·멋 가득... 지역경제 활력 기대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 국제남도음식문화 축제
남도 음식문화의 우수성과 목포의 맛을 대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연찬회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린다.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를 주제로 국내 대표 음식문화축제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올해 국제행사로 개최되는 음식축제는남도음식문화재단의 30년 성과를 보여주는 특별주제관이 운영된다.
또 남도 미식의 세계화·산업화를 위한 전시도 선보인다.

이번 축제는 남도음식의 세계화와 남도 미식산업으로의 발전을 꾀하면서 남도음식의 산업화, 브랜드화를 통해 목포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월애문학여행 '목포 골목길 문학축제'
이어 본격적인 가을로 들어서는 10월 5일과 6일에는 시월애문학여행 '목포 골목길 문학축제'가 기다리고 있다.
'문학, 유포피아 문학마을을 만나다'는 테마로 개최되는 골목길 축제는 목포 문학의 산실이자 한국 문학의 거봉을 다수 배출한 북교동 일대에서 공연과 다양한 전시행사가 열린다.
문학과 골목 그리고 마을이 만나 펼쳐지는 이색 문학 축제로 골목길, 작가 생가, 빈 집, 마을 공터, 빌라 주차장, 게스트하우스, 교회 주차장 등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문학의 색으로 입혀 색다르게 만날 수 있어 특별한 재미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막식, 골목길 문학 전시, 공연, 체험 및 독립서점 페어, 차범석 탄생 100주년 행사 등 다양한 문학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청년과 함께하는 글로벌 파시' 목포항구축제
남만항구 목포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10월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4-25 문화관광축제'이자 '2024 전라남도 대표축제'인 목포항구축제도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개최된다.
목포항구축제는 '청년과 함께 하는 글로벌 파시 항구'란 주제로, 국내 유일 전통파시 무대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제철 수산물을 활용한 파시 경매수산물을 즉석에서 구워먹고 요리해 먹는 등 풍요로운 목포항의 가을 낭만을 즐길 수 있다.
축제는 제철 수산물을 직접 경매받아 구워먹을 수 있는 파시존과 항구존, 현대존으로 나뉘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올 가을 목포에서는 음식에서 문학, 문화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준비됐다"면서 "항구도시의 매력과 문화, 문화예술까지 접할 수 있는 목포가 가을 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목포 시내버스, 내년 1월 공영버스 대전환

15개 노선 128대... 1개 직영·3개 위탁사업자 경쟁 체제

목포시가 시내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 효율성을 모두 갖춘 '공영버스'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월 노선체계 전면개편을 시작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선 공영화(노선권 확보)를 추진한데 이어 운행 안정성과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공영버스 전환(운영체계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목포시내버스의 공영화는 그동안 민간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시내버스를 공영화하고, 1개의 직영사업자(공영제)와 3개의 위탁사업자(노선입찰형 준공영제)가 경쟁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영제와 준공영제가 혼합한 형태이다.
공영버스 사업규모는 15개 노선, 128대다. 1개의 직영사업자가 2개 노선 22대를 운영하고, 3개

의 위탁사업자가 13개 노선 106대를 운영하게 된다.
직영 공영버스는 버스 운행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운영체제로 목포시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중단 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목포시내버스는 지난해 누적인 경역적자를 이유로 사업자가 경영을 포기하면서 목포시가 공영버스로의 전환을 모색했다.
시는 공영화위원회 등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월 노선체계를 전면 개편한데 이어 6월에는 개편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미세조정을 마쳤다.
개편노선은 시내 8개, 시계외 7개로 구성돼 있다. 시내 8개 노선 중 절반인 4개 노선은 10분 간격으로 운행해 간선 역할을 한다. 나머지 4개 노선은 30분 간격으로 지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공영버스 운영을 목적으로 올 연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까지 위탁할 3개 공영버스 사업자를 선정하고, 12월에는 현재의 버스회사와 신규 사업자의 인수인계를 마칠 예정이다.
시는 공영버스 전환을 위해 지난 3월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5월에는 소요 예산을 시외회로부터 승인받아 9월 노선권 매입 계약을 추진하는 등 시 단위 최초 노선 공영화를 완료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공영버스 도입은 기존 대중교통 문제 해결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2025년에는 전기저상버스 도입, BIS 고도화, LED 안내기 설치, 스마트 정류장 시설, 현행 정류장 시설 개선 등을 계획하는 등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늦더위에 벼멸구 비상...해남군, 긴급방제·예찰

명현관 군수, 송지면 등 현장 방문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수확기를 앞둔 벼에 벼멸구가 대량으로 발생해 해남군이 긴급방제와 예찰 등을 강화하고 나섰다.
해남군에 따르면 18일 현재 해남군 관내 벼 재배면적 1만 9727ha 중 5% 가량인 985ha에서 벼멸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해는 계속되는 고온으로 인해 해충의 세대 교체주기가 4일정도 단축되면서 벼멸구가 대량으로 증식했으며, 추석 이후에도 고온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수확기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벼멸구는 줄기와 이삭을 갇아먹어 벼를 고사시키면서 수확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된다.
일반 방제로는 벼 밑동에 서식하는 벼멸구를 박멸하기 어려워 약역이 밀대까지 흐를 수 있도록 고성능 살포기 등을 활용해 충분한 약량이 살포되도록 해야한다.
군은 집중방제기간 동안 농가와 읍면 예찰을 실시하고, 발견시 즉시 방제를 실시하는 한편 조생종 및 중생종 등 수확기에 접어든 벼는 조기 수확



명현관 해남군수가 18일 벼 멸구 피해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날 추석 연휴를 반납한채 벼멸구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송지면과 화산면 일대 벼 재배농지를 잇따라 현장 방문하고, 피해 최소화와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17일 군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벼멸구 발생지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벼멸구 방제 약제 지원을 20일까지 완료하는 등 집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이자·담보·보증 없는 '천사펀드' 뜬다

영암군, 신탁 등 업무협약...소액 대출로 긴급 생활자금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암군민에게 무이자·무담보·무보증의 3무 대출을 해주는 '천사펀드'가 뜬다.
영암군은 최근 군청에서 영암신용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영암지역네트워크와 '영암군 천사펀드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사펀드는 영암형 사회적 금융 프로젝트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소액 대출로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형편이 어려운 영암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영암군과 영암신용협동조합이 심사를 거쳐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영암군은 전남 지자체 최초로 천사펀드를 도입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이 '고금리 대출-이자 증가-신용불량'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규모 경제활동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영암군은 천사펀드를 위해 사업총괄과 대상자를 모집하고, 영암신협은 대출상품 취급 및 상환 관리, 영암지역네트워크는 자원 조성 등을 각각 담당한다.
세 협약기관은 올해 천사펀드의 재원 조성·홍보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천사펀드 조성사업은 단순한 대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연대와 상생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금융 모델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모두가 안정적 경제 생활을 이어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해남공룡박물관 가을 놀이' 신청하세요

다음달 12일 박물관 투어·화석지 탐사·단체 게임 등 다채



매년 가을 열고 있는 박물관 캠프.

해남공룡박물관은 오는 10월 12일 열리는 '해남공룡 가을놀이'에 참가할 가족을 모집한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해남공룡 '가을놀이'는 매년 가을 열고 있는 박물관 캠프 행사를 온 가족 맞춤형으로 확대한 힐링 프로그램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가족에게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현장 학습을 제공하는 한편 가족간 즐거움을 더하는 다양한 야외 행사가 마련됐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남공룡박물관 투어와 야외 화석지 탐사가 진행된다. 또한 가족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단체 미션 프로그램과 다양한

야외 게임 활동이 펼쳐진다. 발걸음을 포함한 다채로운 공룡체험 활동과 버블쇼 공연도 열릴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4세부터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30가족 100명 내외로 모집한다.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온 가족이 해남공룡박물관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 해남공룡박물관 가을놀이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안군 '탄소중립 선도' 1차 대상지 선정

민·관 협력 탄소중립 이행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 구축

신안군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 1차 대상지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지역·민간이 협력해 탄소중립 이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차 대상지는 지난해 예비 후보지로 지정된 전국 3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7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 심의를 거쳐 총 13개 지역이 선정됐다.
군 단위로 유일하게 신안군이 선정되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가서는 중이다.

신안군은 공모에서 'Net-Zero Leading Island 신안군!'을 슬로건으로 채택했다. 넷제로는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제거하는 이산화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배출량이 0이 된다는 뜻이다. 순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신안군의 의지가 표현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지정되면 신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갯벌, 산림조성을 통해 탄소를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자원을 이용해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신안군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전북양식 어가에 4억원 생산장려금

진도군, 전국 최초 시행...연말까지 269곳 운영자금 지원

진도군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년도에 이어 전북양식 어가 생산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269어가를 대상으로 3억 8500만 원을 지급하고, 전북 종자 사료비와 전북종자 양식어가 지원비 등을 연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생산장려금은 전북 산지 가격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양식 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도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진도군의 전북 생산량은 전국의 11%를 차지하고, 지난해 3676톤, 1254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수입량 증대 등에 따른 전북 산지 가격의 하락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어가들에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급한 생산장려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